

핫이슈 '반값 등록금'



도심서 전통 모내기 체험

광주전남녹색연합과 한새봉 농두레가 주관했다.

11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개구리논'에서 주민과 어린이들이 전통 손모시기를 하고 있다. '한새봉 개구리논'은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한 '2010 잘 가꾼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됐던 도심 속 논습지다. 이번 행사는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대학 등록금 실태

국립대 410만원·사립대 680만원

최근 5년 물가 15% 오를때 평균 24%↑... 가파른 상승 수도권보다 200만원 가량 낮지만 체감 부담 더 커 일부대학 장기발전 명목 쌓아 둔 적립금만 수백억원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립·사립 모두 수도권에 비해 200만원 가량 낮다. 그러나 취약한 지역 경제 기반 탓에 학부모들의 평균 수입이 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낮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과 고령화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등록금 체감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등록금은 물가인상률을 배 이상 웃돈다. 그럼에도 일부 대학들은 수백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은 매년 인상하고 있어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은 410만원대이며, 주요 사립대학은 약 680만원대다.

국립대의 경우, 전남대의 2011년 등록금은 432만원이며 순천대 416만원·목포대 410만원·목포해양대 367만원 등의 순이다. 이중 전남대는 인문·사회·법학·경영계열이 370만원

선, 사법·공대계열은 470만원대로 학과나 학부별로도 등록금이 편차를 보였다.

사립인 조선대가 692만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비쌌으며 동신대 691만원·광주대684만원·호남대 680만원·광주여대 657만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조선대 인문·사회계열은 600만원선, 공학계열은 800만원대였다. 호남대는 인문사회과학대학·경영대 600만원, 공과대·예술대 760만원 정도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04년~2009년) 지역 대학의 등록금 인상폭은 국립이 26%, 사립이 22%로 물가인상률(15.2%)보다 훨씬 가팔랐다.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전남대는 5년 동안 인문·사회계열은 76만원, 공학계열은 136만원이 뛰었다. 조선대도 인문·사회계열이 469만원에서 573만원으로 104만원, 공학계열은 628만원에서 768만원으로 140만원이 올랐다.

또한 지역 대학의 적립금은 수도권과 격차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대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조선대의 적립금은 997억원에 달한다. 이어 초당대는 454억원, 대불대 233억원, 광주대 202억원, 호남대 191억원, 동신대 36억원 등이다.

적립금은 단순히 쌓아둔 돈이 아니라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쓰이기 때문에 소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학의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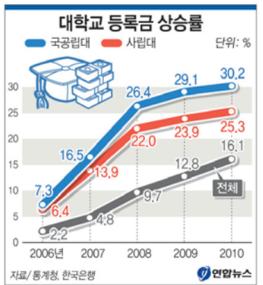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대학 재정 규모와 상태 등을 고려, 각 대학들이 수익이라도 등록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일 광주 남구로 출몰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조선대의 한 학생은 "한 학기에 4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년 대출을 받고 있다"면서 "생활비나 용돈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전남 주요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Table with 3 columns: 대학 (University), 평균 등록금 '11 (Average Registration Fee '11), 평균 등록금 '10 (Average Registration Fee '10), 인상률 (Increase Rate). Lists universities like 광신대학교, 광주대학교, 남부여대, 대불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기톨릭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교.



대학가 '등록금 감사' 불똥 튀라

“예산 집행 아닌 '등록금 인하 감사 안될 말' 불멘소리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공립 및 사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대학들은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를 단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교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는 일찌감치 예고돼왔다.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3월 취임하면서 첫마디로 “다른 어떤 비리보다 교육비리 척결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분야의 청렴 수준을 한단계 올려놓는 감사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립대는 공공감사법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지만 사립대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단

분류된다. 하지만 사립대에도 국고 지원되는 만큼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그동안 국립대 일부에 대해 연구비 감사사를 진행해 왔지만 지난달부터는 대학의 입시와 학사 전반에 대한 사안감사를 실시해 왔고, 이달 중순께 감사를 끝낼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일부 대학이 일반 대학생을 국가보훈대상자인 것처럼 꾸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받았다는 말이 흘러 나오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대학들의 각종 특별전환 이 편법·불법 대학입학의 통로로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몇몇 대학에 대해 현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사학감독권이

있는 교과부의 감사관실에서 2004년부터 공인회계사가 참여한 가운데 회계 감사 위주의 감사를 해왔다. 교과부는 지난해와 올해는 대학 연구비 감사를 실시해 카이스트와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에서 일부 부정적 집행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대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등록금 문제는 정부가 직접 제어할 근거가 약하고,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에도 어긋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 소식에 대학가는 잔뜩 긴장하면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광주와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 실태나 예산 집행 등이 아닌 등록금 인하를 목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이 합당한 지 묻고 싶다”며 불멘소리를 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50대 가구, 등록금 지출 5년새 두배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달아 열린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지출이 5년 새 갑절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대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대학 등록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2~3년간 두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50~59세인 가구의 월평균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5년 8만4001원에서 2010년 14만8522원으로 늘었다. 5년새 1.8배로 늘어난 것이다. 고등교육 지출은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소비지출 증가 배율은 월평균 189만4361원에서 233만6633원으로 1.2배에 그쳤다.

전체 소비지출보다 고등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훨씬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 및 대학교 등록금이 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학기 등록금을 내는 1분기와 3분기 중 소비지출에서 고등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2~3년

들어 부쩍 커졌다. 2003~2011년 1분기를 비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계가 지출을 크게 줄였던 2009년 1분기를 제외하면 올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3년 7.4%, 2004년 9.7%, 2005년 8.2%, 2006년 8.5%, 2007년 10.3%, 2008년 8.7%, 2009년 13.5%, 2010년 11.5%, 2011년 11.5%를 기록했다.

3분기는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 1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Cartoon titled '빛의만정' (Light's Romance) by 김중두. It depicts a man and a woman in a field, with a sign that says '반값등록금' (Half-price Registration Fee). The man says '반값 등록금만 손에...' (Half-price registration fee only in my hand...) and the woman says '일부러 대학' (I'll go to university). A speech bubble says '누굴 위한 나라인지 참 답답하다' (How frustrating it is to wonder who the country is for).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and events. It includes sections for '롯데제이티비' (Lotte JTB), '유럽' (Europe), '동유럽' (Eastern Europe), '스페셜' (Special), '동남아' (Southeast Asia), and '남태평양' (South Pacific). Each section lists destinations, dates, and prices. There are also promotional banners for '롯데제이티비' and '롯데제이티비 대리점 모집' (Lotte JTB Agent Recruitment).